

2009 서울 매거진페어

세계 첫 '매거진페어' 서울 코엑스서 열려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가 주최한 2009서울매거진페어가 구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잡지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렸다. 전용진 서울매거진페어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서울매거진페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시회로 잡지만으로 구성된 전시회는 대내외적으로 없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인터넷의 보급, 무료정보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지매체에게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새 패러다임에 맞는 글로벌화, 디지털화를 추구하여 잡지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혜의 보고이며 생활 그 자체인 잡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문화 창달의 역할과 여론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든든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3단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서울매거진페어는 1단계(2009~2011년)를 통해 국내 최초 매거진 전시회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화의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며 2단계(2012~2014년)에는 전시회의 전문화를 통해 규모, 해외업체의 참가, 바이어의 확대 등 국제화를 모색한다. 3단계(2015~2017년)에서는 아시아 진출 및 교역을 위한 '동북아 전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브랜드 전시회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사지, 여성지, 기계/기술지, 종교지를 비롯, 성인오락지, 디자인 및 학술지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해 전시회의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회 동안에는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국내 2200여 매체사, 2700여종의 잡지가 출품되며

회귀·고잡지와 창간호 200여종도 선보였다. 외국잡지협회의 지원으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잡지도 전시되었으며 이외에도 '디지털시대 잡지의 미래와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 SEMA패션쇼, 골프공 캐리커처 이벤트, 매거진모델 선발대회, 댄스스포츠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채용박람회 등 내실 있는 행사가 이어져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2009서울매거진페어 조직위원회와 (주)한국국제전시가 공동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MBC,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1 전시된 잡지를 보는 관람객
2 50~60년대의 잡지들
3 전시장 전경

